

# 전국 교육자 대회 경과 보고



문 교 부 장 관 민 관 식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신 과업의 주요 지표의 하나인 “전국민의 과학화”를 축성하기 위한 20만 교육자의 의연한 결의를 내외에 밝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1972년 경북 대구에서 “총력 안보를 위한 교육자 대회”를 갖고 그 실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입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을 통하여 이른 바 “국적 있는 교육”의 기초 위에서 우선 청년 학도들에게 민족의 생존을 위한 국가 안보의식을 함양 제고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쓰라린 과거 “역사의 교훈홀과 숙명적으로 반도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정세가 열강들의 이해와 관련하여 여하히 변천하던 간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데에는 힘을 배양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이를 교육의 영역 안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목적으로 일면으로는 국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신 교육을, 그리고 한편

으로는 일조 유사시에는 학교 학생들을 전력화할 수 있도록 군사 교련을 강력히 실시해 온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사 교육, 국민 윤리 교육 등에 특히 역점을 두었고 또한 실기 위주 교련 학생들의 입영 훈련, 행군 대회 등 군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육자들이 바친 정열과 애국 학생들의 열성있는 호응은 이제 분명히 조국 보위의 저력으로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총력 안보를 위한 교육은 영원히 계승 발전할 것으로 확신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국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첫과업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굳게 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뜻깊은 여기 전주 대회는 유신 과업의 궁극적 지표로서의 국력 배양을 지향하여 “국력 배양만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영구히 보장한다”는 대명제 밑에 각하께서 연두에 강조하신 “전국민의 과학화”를 올해의 과업으로



<민 문교 장의 리셉션에서의 테이블 스피치 광경>



<전국 교육자 대회장 광경>



<과학·기술 교육 유공 교원 포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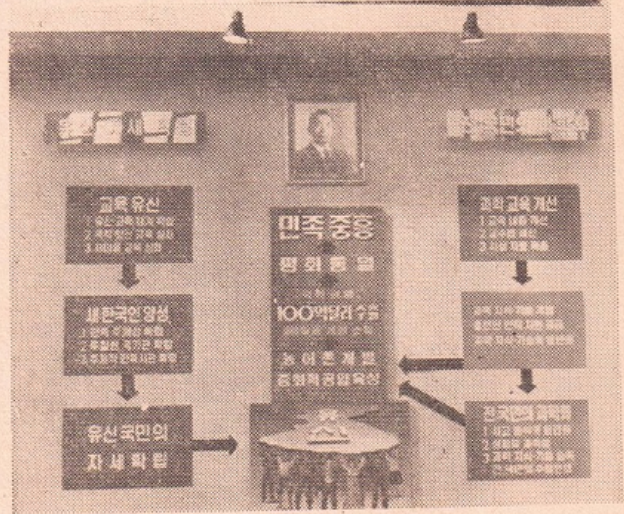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화’——그것은 실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너무도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화는 전국민이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생활 습성을 갖도록 하여 개인과 집단과 사회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 비능률, 낭비와 비생산적 요인 등을 제거하여, 능률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 지식을 습득시키고 누구나 저마다의 소질에 알맞게 기능을 익히도록 하여 현실 생활 부문에서 소득을 증대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국민이 기능을 익히고 노력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는 곧 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요, 한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상 과제인 80년대 초에 1,000불 소득과 100억불 수출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뜻있고 보람있는 “전국민의 과학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한편 교육의 주관 부서로서의 문교부는 실업계 고교의 현장 실습 의무제, 산학 협동 체제, 기능장 제도 등을 계속 추진 발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대통령 각하의 높이신 배려로 이루어진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병역 특전”이 과학 교



<우리 나라 교육의 지표 체계도>

육 진흥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오늘의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해도, 우리들은 불굴의 의지로써 오로지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으며, 입신도 영화도 잊고 오직 교육을 통하여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임을 자부하면서, 낙후와 무지에 영구히 도전하는 겨레의 스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국내외 정세의 무상한 변천에 따라, 계속 제기되는 난관을 뚫고 나가는 데 높은 지혜, 신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자는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며, 그 위대한 실증은 이미 지난 “시월 유신”에서 과시된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영구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배국력양”만이 대전제라고 단정하고, 총력 안보 또는 새마을 교육, 과학화를 위한 교육에 정진해 왔고 또 정진할 것입니다.

우리들 20만 교육자와 850만의 학도는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의 바탕 위에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창의와 성실 그리고 책임을 다할 결의를 더욱 새롭게 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1973. 3. 23

유신으로 동진겨레 과학으로 번영하자